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다이묘 저택



▲구마모토번의 도고시 저택 평면도(에이세이 문고 소장)

## 에도의 다이묘 저택

1657년에 발생한 대화재 이후, 막부가 다이묘에게 하사하는 저택은 가미야시키·나카야시키·시모야시키의 3종류로 정리되었습니다. 가미야시키는 다이묘나 그 가족이 살고, 에도성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 꾸려졌습니다. 나카야시는 은거한 다이묘나 다이묘의 후계자가 살며, 가미야시키의 예비 시설로서도 쓰였습니다. 시모야시키는 가미야시키·나카야시키보다도 에도성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며, 별장으로 쓰였습니다.

해변이나 강변에 있는 저택은 하역장, 집 보관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들 다이묘가 막부로부터 하사받은 저택과는 별도로 다이묘가 직접 토지를 사서 소유한 저택은 가카에야시키라고 합니다.

시나가와는 에도와 가까워서 시모야시키, 가카에야시키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이무라 마을에는 사쓰마번(주로 지금의 가고시마현) 시마즈 가문과 도사번(주로 지금의 고치현) 야마우치 가문, 가미오사키무라 마을에는 히토쓰바시 가문과

마쓰시로번(지금의 나가노현 나가노시 주변)

사나다 가문, 시모오사키무라에는

센다이번(지금의 미야기현 센다이시 주변)

다테 가문, 기타시나가와에는 우토번(지금의

구마모토현 우토시 주변) 호소카와 가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마모토번(지금의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변) 호소카와 가문의 시모야시키 및

가카에야시키는 규모가 컸습니다.

이 저택은 당초 호소카와 가문의 분가가

하사받은 것이었으나, 호소카와 본가와

저택을 교환함으로써 호소카와 본가 소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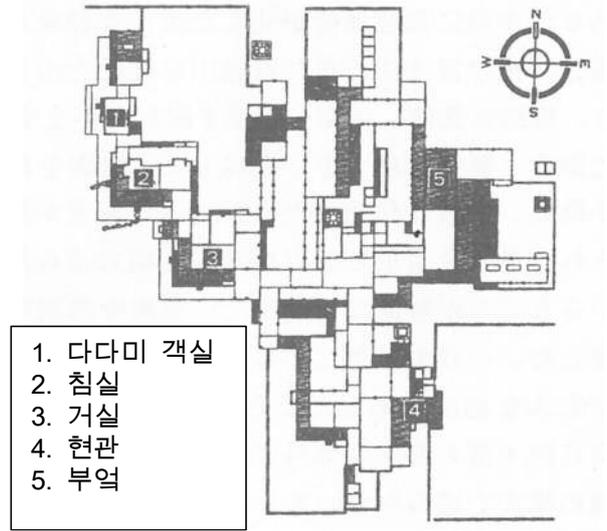
되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면적이 33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 구마모토번 도고시 저택 평면도

1페이지에 게재한 평면도는 1671년에 작성되었으며, 광대한 도고시 저택의 전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지는 중앙을 남북으로 가르는 승마장에서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쪽 정원에는 북동부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곳에서의 조망을 배려하여 남서부에 약간 높은 산과 못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도고시 공원(도쿄도 시나가와구 유타카초 2-1)은 과거 동쪽 정원이 있었던 장소에 위치합니다.

서쪽 정원은 동쪽의 2배 이상의 넓이이며 중앙에는 비와코 호수(시가현에 있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를 본뜬 큰 못을, 그 남쪽에는 후지산(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에 걸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 동쪽에는 쓰쿠바산(이바라키현에 있는 산)을 본뜬 산을 조성했습니다. 정원에는 오솔길과 작은 휴식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있는 스이젠지 공원도 동일한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고시 저택의 동쪽 정원에 있는 건물의 배치도  
참고로 서쪽 정원에 관한 자료는 이 평면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 입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그 후의 도고시 저택

도고시 저택은 1678년 화마로 소실되어, 1700년에 토지 일부를 다른 가문과 교환하기 위해 막부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58년까지는 여전히 호소카와 가문이 관리했습니다. 그 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다른 가문의 손에 넘어가, 1806년에 호소카와 가문의 손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현재, 도고시 저택 부지 일부는 도고시  
 공원으로 정비되어,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1846 년의 도고시 저택



▲지금의 도고시 공원